

## 제일 공정한 평가

인민을 위해 해놓은 일을 보실 때마다, 인민에게 안겨줄 창조물을 대하실 때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늘 하시는 물음이 있다.

인민이 좋아하는가.

2013년 6월 어느날 창성군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이곳에 꾸려진 창성각을 돌아보실 때였다.

창성각이 어제보다 오늘이 희한하게 발전하였는데 한번 잘해놓았다고 하여 자만하지 말고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데 대하여 당부하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1층 1호식사실에 들리시였다.

식사실을 둘러보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지금 식사실들이 비어있는데 인민들이 식사를 할 때 여기에 왔더라면 더 좋았을걸 아쉽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어 식사실에서 창성각의 운영정형과 인민들의 반향에 대하여 료해하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인민들이 아주 좋아한다는데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는 만족하신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의 사업에 대한 제일 공정한 평가는 인민들의 목소리이라고, 인민들이 좋다고 하면 다른 평가가 더 필요없다고, 일군들은 무슨 일을 하나 해도 인민들이 좋아하게 하여야 한다고.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일군들은 흥분을 금할수가 없었다.

제일 공정한 평가는 인민들의 목소리이다.

인민들이 좋다고 하면 다른 평가가 더 필요없다.

이 뜻깊은 말씀에 오로지 인민만을 생각하시는 그이의 사랑의 세계가 얼마나 뜨겁게 응축되어있는것인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가슴은 세차게 고래치였다.

인민들의 목소리를 사업에 대한 제일 공정한 평가로 여기고 인민이 덕을 볼수 있는 일, 인민이 바라는 일을 더 많이 하여 인민의 충족된 본분을 다해갈 철석의 맹세로.